

어떤 유형의 기업정보도 액세스 'OK'

멀티미디어 자료 RDB에 추가시 코드변환 불필요

인포믹스 유니버설 서버(IUS)가 국내에서 본격 발표됐다.

지난해 2월 일리스트라社를 인수한 지 거의 1년만에 양사의 기술력 결합이 '객체관계형 DBMS, 인포믹스 유니버설 서버'로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한국인포믹스(대표 김광원)는 지난달 18일의 서울행사를 기점으로 대전, 대구, 부산 등지의 지방로드쇼도 이달 11~13일중에 가질 예정이다.

인포믹스의 회장겸 CEO인 필 화이트는 '사용자들이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구현, 어떤 유형의 기업 정보라도 액세스할 수 있게 한 것은 인포믹스 유니버설 서버가 처음'이라고 자신감을 표명했다. 그는 또 '멀티미디어 자료를 관계형 모델에 추가시키기 위해 코드를 재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유니버설 서버의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유니버설데이' 행사 진행을 위해 내한한 본사 데이빗 코프(David J.Cope) 마케팅 부사장은 인포믹스의 DSA(동적 확장구조)를 기반으로 설계된 IUS가 광범위한 데이터 유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데모를 중심으로 구현해 국내 사용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IUS, 경쟁우위 설명에 '역점'

데이빗 부사장은 IUS와 같은 '네이티브 서버'와 미들웨어성 서버 제품을 비교해 보이는데 역점을 두면서, "미들웨어로 연결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멀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 다른 DB 애플리케이션에 데이터를 전송할 때 다운되면 백업문제나 복구, 튜닝, 지원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네이티브 서버가 유리한 점으로 ▲사용자 확장성 ▲플러그인 라이브러리 ▲턴키 데이터 타입 200개 이상 ▲새로운 액세스 방법 ▲최적화 방법 ▲데이터 통합은 서

버에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한 등의 요소를 들었다. 미들웨어 모델은 턴키 데이터 타입은 4개이고, 데이터 통합은 클라이언트에서 해야 하며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불가능'이라고 단언했다.

인포믹스측은 오라클의 아키텍처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엔진에 대한 기술을 활용한 것이며, 이를 '리아키텍처' 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반박하고 있다. 오라클 제품은 미들웨어적인 접근으로,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붙여주는 방법밖에 안된다는 것이며, "이것이 카트리지다"라고 설명. 데이터 카트리지는 온라인 작업환경에서 복합적인 데이터 유형을 사용할 때 원하는 성능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IUS는 기존 인포믹스의 주요 제품과 동일한 DSA 구조에 근거하여 개발되었기에 '워크그룹 서버'나 '온라인 DSA' 상에서 개발한 응용제품이어도 코드 자체를 재작성할 필요없이 IUS로 쉽게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성이다. IUS는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 요소를 단일 엔진내에 탑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일 엔진 솔루션은 성능에 대한 신뢰성은 물론 보안의 특성을 지니면서 데이터베이스와 응용의 복잡성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IUS는 웹상에서의 문서관리와 디지털 퍼블리싱, 멀티미디어, 오락, 지구과학, 금융서비스, 운송, 소매, 건강관

리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데이터블레이드 29개 상용화, 51개 개발중

IUS는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시계열, 웹기반의 데이터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에 대한 저장과 관리 효율을 위해 데이터블레이드(DataBlade)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데이터블레이드 모듈은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플러그인되는 소프트웨어 모듈로서, 사용자가 원하는 어떠한 데이터라도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성능을 제공하여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확장시키고 있다.

사용자는 인포믹스와 써드파티업체가 제공하는 데이터블레이드 모듈을 혼합 연동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용자 고유의 비즈니스 응용을 생성하도록 하는 데이터블레이드 모듈을 직접 작성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즉, 사용자는 이제 원하는 기능을 데이터베이스 업체에게 요구하여 해결해 주기를 기다릴 필요없이 직접 원하는 기능을 작성하거나 각 단위 업체에서 제공하는 개별 솔루션을 데이터블레이드 모듈로 변형하여 서버에 장착하면 바로 원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가용한 데이터블레이드 모듈은 29가지이고 51가지 모듈을 추가로 개발하고 있다. 29가지 데이터블레이드 모듈은 데이터웨어하우스/금융, 지리/공간정보, 웹/전자상거래, 디지털미디어, 텍스트/문서관리 등의 응용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로 구성돼 있다.

데이터블레이드 기술은 서버에 직접 장착되어 서버의 기능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서버 외부에 존재하여 서버와 통신을 하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과는 성능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수나 문자와 같은 단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비정형 데이터, 즉, 소위 말하는 덩치가 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이러한 서버 내부가 아닌 외부 처리 방식으로 조작하는 경우에는 성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써드파티 소프트웨어 업체(ISV)나 고객社에서는 개발



▲ '유니버설데이' 행사를 위해 내한한 데이빗 코프는 인포믹스 전세계 마케팅조직의 부사장이자 데이터블레이드 비즈니스 개발조직의 총책임자이다.

킷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수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개발시 코드 생성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ISV 데이터블레이드에 대해 엄격한 테스트 과정을 거친다.

데이터블레이드는 자바를 통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고, 시스템의 리소스 즉, 고유요소의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인포믹스측은 단언한다. 데이터베이스 타입을 확장할 때 오히려 안전하며, 단일화·통합화된 이미지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고. 안정성 체크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테스트 툴을 제공하고 있다.

인포믹스 DSA 엔진은 옵티마이저와 파서 기능을 향상시킬 계획이고, '데이터 블레이드'는 표준 모드로 제출해놓은 상태로, 데이터 블레이드 API 라이선싱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탠덤과 이와관련된 제휴관계를 맺고 있다. 인포믹스 데이빗 마케팅 부사장은 "데이터 블레이드는 데이터 확장에 있어 업계 표준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명했다.

데이터 블레이드는 하드웨어의 드라이버에 해당하므로 드라이버를 개발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붙이는 경우 엔진은 안전하며, 드라이버 레벨에서 플러그인으로 각 컴포넌트 사용할 수 있게 된다. 3개의 드라이버를 엮어서 컴포넌트화된 드라이버로 제공하면 애플리케이션을 짤 때 편리할 것이다. 한국인포믹스는 SI업체를 주대상으로 데이터 블레이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인포믹스-유니버설 웹 아키텍처

이번 '유니버설데이' 행사에서 첫선을 보이는 또하나의 쾌거는 인포믹스 유니버설 웹 아키텍처(IUWA)이다. 개방형 웹기반 개발환경인 IUWA은 기업의 인터넷/인트라넷은 물론 엑스트라넷 사용자까지 주문형 콘텐츠 제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지능형 웹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기대되고 있다. IUWA의 핵심요소는 웹가능 데이터베이스, 자바 애니웨어 전략, 인포믹스-제이웍스 툴, 웹 데이터블레이드 모듈, 인포믹스-유

니버설 웹 커넥트 등이 있다.

인포믹스는 웹 응용이 의사결정 지원에 근거한 것이든, 트랜잭션 처리에 근거한 것이든 모든 응용을 웹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IUWA는 웹 응용 개발자로 하여금 지능적인 웹 사이트를 생성하게 함으로써 웹이 가진 잠재력을 헤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특성을 자랑한다. 즉, 웹 사이트를 파일로 저장하는 대신 웹 페이지, 이미지, 지도, 응용템플릿, 응용로직을 포함하는 전체 웹 응용을 단일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내에 모두 저장하여 '유니버설 서버'가 제공하는 지능, 자원확장성, 관리기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IUWA를 적용함으로써 웹 사이트를 구성하는 모든 내용을 쉽게 관리할 수 있다.

지능적인 웹 사이트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첫째, "웹 사이트를 구성하는 모든 내용을 얼마나 쉽게 관리할 수 있는가"이다. 모든 응용로직과 내용을 단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빠르고 용이한 응용 생성 및 갱신을 제공하고, IUS가 제공하는 자원확장성으로 성장세에 있는 웹 응용을 처리하고 고도의 사용자 활동을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자동화된 IUS의 자료이중화(리플리케이션)로 여러 개의 웹 사이트로 분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두 번째는, "개별화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어떻게 동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가"이다. IUWA는 일련의 꼬리표(태그)와 속성을 통해 HTML 문서의 동적인 구성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꼬리표와 함께 HTML 페이지의 어느 곳에서든 SQL3 구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개발자는 SQL3 구문내에 변수를 포함할 수 있다.

IUWA는 개방된 구조로 제공되고 있는데, 개발자로 하여금 자바, IOP, HTML, C, C++, ActiveX, 뉴에라, 그외 인포믹스 응용 개발도구로 응용을 작성할 수 있도록 개발언어에 대한 독립된 환경을 제공하고 CORBA나 DCOM/COM과 같은 특정 통신 프로토콜과도 독립된 환경을 제공한다.

IUWA의 출시 일정을 보면, 웹가능 온라인 제품과 인포믹스-웹 데이터블레이드는 현재 나와있고, 올 상반기중에 인포믹스-유니버설 웹 커넥트 및 인포믹스-제이웍스가 발표될 예정이다. 또, 온라인 제품용 인포믹스 유니버설 웹 커넥트는 지난해 12월에 나왔고, 인포믹스 유니버설 서버



용 인포믹스 유니버설 웹 커넥트는 올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자바 애니웨어 전략 구현

한편, 인포믹스는 최근 개발자들이 웹과 클라이언트/서버 애플리케이션을 최적화하기 위해 어떤 층위에서나 자바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 로직을 실행할 수 있는 자바 애니웨어(JAVA-anywhere) 전략으로 인포믹스 자바 환경을 발표했다.

자바의 유연성, 보안, 이식성과 인포믹스의 자바 애니웨어 전략이 결합됨으로써 개발자들은 지능형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쉽고 빠르게 플랫폼독립적인 솔루션을 갖게 됐다는 것.

썬마이크로시스템즈社의 에릭 슈미트 부사장은 "인포믹스의 자바 애니웨어 전략은 인포믹스의 자바 개발 참여를 예시하는 것"이라면서, "고객들은 새로운 부류의 지능형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해 인포믹스의 유니버설 아키텍처와 결합된 자바스테이션과 같은 저가형 데스크톱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자바 애니웨어 전략은 개발자들이 자바 언어로 애플리케이션 로직과 콘텐츠를 작성한 뒤 그것을 클라이언트나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중간층(미들-티어), 또는 최적의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내기 위해서라면 데이터베이스 엔진에서 자연스럽게 실행할 수 있게 한다. 인포믹스 자바 환경은 자바 API, JDBC 지원, 인포믹스 제이웍스 개발툴, 유니버설 웹 커넥트, 웹 데이터블레이드 모듈과 인포믹스 유니버설 서버의 서버 사양에 있는 자바로 이루어져 있다. 이 환경은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툴, 인포믹스 유니버설 웹 커넥트를 포함하는 IUWA의 핵심 요소이다. <이영애 객원기자>